



2026. 8. 19 (수)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주담대 이자 또 오른다'..코픽스 4개월 연속 상승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72eqqW>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4개월 연속 상승
고정형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형 주담대로 수요가 몰린 상황에서 코픽스와 은행 가산금리가 함께 오르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

"증시든 금이든 빠지면 들어가야"...6개월 이하 은행예금 잔액 2배 '쑥'

매일경제

<https://zrr.kr/zlM2ac>

5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만기 6개월 이하 정기예금 잔액은 2021년 말 대비 2.2배 증가, 동기간 전체 정기예금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
경제와 금융 시장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만기를 짧게 가져가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자금을 다시 배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KB, 인니에 금융지주 세운다 '아픈 손가락' 경영정상화 시동

매일경제

<https://zrr.kr/2OWXdf>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현지 금융지주사 설립 계획을 승인
국민은행은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은행, 증권, 손보, 카드, 캐피탈 등 현지 계열사를 단일 지배구조 아래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통합 착수...내년 55조 '보험왕국' 출조

블로터

<https://zrr.kr/wRtOGk>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동양·ABL생명을 계열사로 편입한 데 이어 2027년 하반기 총자산 55조원 규모의 통합 생보사를 출범시켜 보험을 그룹 핵심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
통합 보험사의 경영 방향으로 우리금융은 K-ICS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미래 보험이익의 주요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

미래에셋증권, 퍼블릭닷컴 인수 검토..."북미 리테일시장 공략"

서울경제

<https://zrr.kr/3SkxcU>

미래에셋증권이 미국 리테일 증권 플랫폼인 퍼블릭닷컴 인수를 검토 중
이번 M&A를 통해 북미 리테일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

조달금리 연 4% 육박...증권 발행어음 속도조절

한국경제

<https://zrr.kr/1CyQE7>

기존 발행어음 사업자 가운데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지난 2분기 동시에 잔액을 줄이면서 발행어음 조달 경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
발행어음 금리가 연 4%에 육박하면서 수익성 확보가 힘들어진 영향에 무리하게 규모를 늘리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

'보험판매전문회사' 법안 발의...GA 숙원 현실화하나

보험매일

<https://zrr.kr/GO2guA>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숙원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18년 만에 다시 입법 절차에 착수
대형 GA에 보험사와 모집 수수료·사업비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주가 널뛰기에 흔들리는 변액보험...원금 손실 주의보

포인트데일리

<https://zrr.kr/cfe4vg>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보유한 변액보험 순자산 총액은 지난 6월 150조원을 웃돌았으나 이달 11일 기준 128조원 수준까지 감소
최근 주식시장이 급격한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액보험 자산 가치도 크게 요동치고 있어 상품 계약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

"내후년 7월부터 미승인 스테이블코인 美 판매 금지"

이데일리

<https://zrr.kr/Zoldwx>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세부 시행규칙안이 처음으로 공개
해의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판매도 허용하되, 내후년인 2028년 7월부터는 미국 승인을 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판매 금지할 계획

가상자산 거래소 '천수담' 실적에 고심 깊어...수수료 비중 두나무 97%·빗썸 100%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https://zrr.kr/O9efeH>

두나무와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업황에 따라 실적이 들쭉날쭉 하지만 이를 만회할 사업 다각화도 어려운 상황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단순 가상자산 거래 중개를 넘어 사업을 다각화하려면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는 입장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